



호랑이 천적 넥센을 넘어라



KIA, 오늘부터 안방서 넥센과 시즌 첫 격돌

지난해 4승 12패 열세

울시즌 꼭 이겨야 할 상대

핵터·윤석민 출격 대기

‘호랑이 군단’이 안방에서 과거를 지운다.

문학 원정을 다녀온 KIA 타이거즈가 15일부터 넥센 히어로즈와 주말 홈 3연전을 치른다.

넥센만 만나면 작아지던 호랑이었다. 지난 시즌 상대전적은 4승12패. 대표적인 ‘천적’으로 꼽히는 NC(5승11패)와의 상대 전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적이다. 12패 중 7패가 역전패였다.

지난 시즌 팀 피홈런(143개) 중 20%(28개)를 넥센전에 허용하는 등 한방에 번번이 무너졌다. 당연히 평균자책점도 높다. 지난해 KIA의 팀 평균자책점은 4.80. 넥센전만 놓고 보면 6.18까지 치솟는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꿴 KIA는 4월 17일 첫 대결에서 ‘퍼펙트 사나이’ 험버를 내세웠지만 심동섭의 불륜세이브로 3-4 역전패를 기록했다. 이후 스티븐슨과 문경찬이 선발로 나와 나란히 패전투수가 되면서 싸늘이 패로 첫 시리즈가 끝났다.

두 번째 만남도 루징 시리즈였다. 5월 8일 원정에서 한승혁이 박병호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았고, 9일에는 서재응에 이어 두 번째 투수로 나온 박준표가 패전투수가 됐다. 이 패배로 2014시즌부터 넥센전 11연패가 기록됐다. 이범호의 만루홈런으로 어렵게 넥센전 연패 사슬을 끊어낼 수 있었지만 이후에도 승보다 패가 더 많이 쌓였다.

KIA가 가을잔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세의 과거를 지워야 한다.

객관적인 전력만으로 보면 지난 시즌에 비해 KIA는 플러스, 넥센은 마이너이다. 지난 시즌 KIA전에서 0.383의 타율로 10홈런 20타점을 쟁겼던 박병호(미네소타 트윈스)와 ‘호랑이 킬러’로 활약해온 유한준(kt) 빠진 가운데 KIA는 김주형의 깜짝 활약으로 중심 타선에 부쩍 힘이 붙었다. 투수력에서도 넥센은 마무리 손승락(롯데)의 이적과 조상우·한현희의 부상이 겹쳤지만 KIA는 특별한 이탈자 없이 외국인 선수로 마운드를 강화했다.

투·타에서 전력이 상승한 KIA는 NC와의 시즌 첫 만남에서도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며 자신감도 업그레이드했다. 선발 로테이션도 괜찮다. 2연승 중인 ‘특급 외국인 선수’ 핵터를 필두로 지난 시즌 넥센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윤석민과 임준혁이 대기를 하면서 기싸움에서는 밀리지 않는다.

하지만 스피드 싸움에서 열세다. 넥센은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져나간 상황에서 선두권에서 질주를 하고 있다. 떨어진 파워는 스피드로 만회하고 있다. 13일 현재 넥센은 11경기에서 15차례 베이스를 훔치며 도루 1위(경기당 평균 1.4개)에 올랐다. KIA는 9경기에서 6개의 도루(경기당 평균 0.67개)를 기록하는 데 그치면서 한화(3개)에 이어 최하위다.

스피드 자체로도 위협적이지만, 스피드를 의식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수비 집중력이 절실하다. 수비 실수가 발단이 된 빠이폰 패배들이 있었다. 달라진 모습으로 달라진 결과를 내야하는 중요한 첫 만남이 ‘호랑이 군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대호 끝내줬다!

연장 대타 홈런...시애틀 5연패 탈출

시애틀 매리너스의 이대호가 14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세이프코필드에서 열린 텍사스 레인저스와 메이저리그 홈 경기에서 연장 10회말 대타로 출전, 제이크 디크먼을 상대로 끝내기 투런포를 때린 뒤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텍사스 4-2 꺾어...MLB 3안타 중 2안타가 홈런

이대호(34·시애틀 매리너스)가 대타 끝내기 홈런을 치며 영웅이 됐다.

이대호는 14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세이프코필드에서 열린 텍사스 레인저스와 메이저리그 홈 경기, 2-2로 맞선 연장 10회말 2사 1루에서 애덤 린드를 대신해 타석에 들어섰다. 강속구를 갖춘 좌완 제이크 디크먼과 맞선 이대호는 시속 156km짜리 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왼쪽 담을 넘어가는 끝내기 투런 안타를 그쳤다.

이대호는 주먹을 불끈 쥐며 1루를 향해 달렸고, 시애틀 동료들은 홈 플레이트로 뛰어나와 ‘영웅’ 이대호를 반겼다.

이날 시애틀은 텍사스가 우완 A.J. 그리핀을 선발투수로 내세우자 좌타자 린드를 선발 1루수로 내세웠다.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이대호는 차분하게 기회를 기다렸다. 2-1로 앞서가던 시애틀은 8회초 델리노 드실즈에게 동점 솔로포를 얻어맞았고, 연장전에 돌입했다. 연장 10회말,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시애틀은 1사 후 넬슨 크루스가 상대 2루수 루그네드 오도어의 실책으로 1루를 밟아 기회를 잡았다. 후속타자 카일 시거는 3루 땅볼에 그쳤고, 이 사이 오도어가 2루에서 포스아웃됐다.

린드의 타석 때 스코트 서비스 시애틀 감독은 ‘이대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대호는 디크먼의 조구 156km 투심이 스트라이크존을 통과하는 걸, 그대로 지켜봤다. 2구째 시속 153km 투심에 배트를 내밀었으나 파울이 됐다.

볼카운트 2스트라이크로 몰린 상황. 하지만 이대호는 차분했다. 3구째 시속 156km의 빠른 투심에 이대호의 배트가 반응했고 타구는 외야 담장 밖으로 날아갔다. 5연패 늪에 빠진 팀을 수렁에서 건져내는 희비의 끝내기 투런포였다. 지난 9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경기에서 메이저리그 첫 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한 이대호는 13일 텍사스를 상대로 메이저리그 두 번째 안타를 쳤다. 그동안 이대호는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서판 안타를 쳤다. 하지만 이날 대타로 등장해 끝내기 홈런을 기록했다. 이대호의 메이저리그 타율은 0.231(13타수 3안타)로 올랐다. 이 중 2안타가 홈런이다. /연합뉴스

김세영 LPGA 롯데 챔피언십 2연패 시동

1R 3언더 공동3위

김세영(23·미래에셋)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 대회 2연패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김세영은 14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코 올라나 골프클럽(파72·6383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쳤다. 김세영은 선두에 1타 뒤진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리며 2년 연속 우승을 위해 순조롭게 출발했다.

그는 지난해 이 대회 18홀(파4)에서 치러진 연장전에서 154야드를 남기고 8번 아이언으로 친 두 번째 샷을 그대로 홀에 집어넣어 우승한 바 있다.

김세영은 전반 9개 홀에서 버디 2개를



보기 2개와 맞바꾸며 이븐파에 그쳤다. 그러나 13번홀부터 3홀 연속 1타씩을 줄이며 ‘아일랜드 킥’다운 면모를 보였다. 김세영은 지난해 섬에서 열린 3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며 이 같은 별명을 얻었다.

호주 교포 이민지(20·하나금융그룹)가 4언더파 68타로 공동 1위에 올랐고, 지은

희(29·한화)가 2언더파 70타 공동 8위에 자리했다.

지난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 여자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이번 대회 출전권을 따낸 장수연(22·롯데)이 1언더파 71타를 치며 공동 13위로 순조로운 출발했다.

롯데마트 여자오픈에서 공동 4위에 오른 고등학생 아마추어 최혜진(18)은 이번 파 72타로 선전하며 유소연(26·하나금융그룹)과 공동 23위에 랭크됐다.

세계랭킹 2위 박인비(28·KB금융그룹)와 전인지(22·하이투자증권)는 2오버파 74타를 치며 공동 60위권에 그쳤다. 세계랭킹 1위 뉴질랜드 리디아 고(19)는 1언더파 71타로 공동 13위를 달렸다. /연합뉴스

현대차 제네시스 브랜드

KPGA 코리안 투어 후원

제네시스 브랜드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의 ‘코리안 투어’를 후원한다.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브랜드 제네시스는 14일 경기도 남양주의 해비치 CC에서 KPGA 코리안 투어의 공식 후원 계약 조인식을 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이번 KPGA 코리안 투어 후원을 통해 국내 남자 골프 투어의 활성화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후원을 계기로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 제도라고 명명한 한국 남자골프 투어 사상 최초의 투어 포인트 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9년까지 앞으로 4년간 지속할 이번 후원에서 제네시스 브랜드는 매년 투어가 종료되는 시점에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 획득 상위 10명에게 총 3억원의 보너스 상금을 지급한다. /연합뉴스